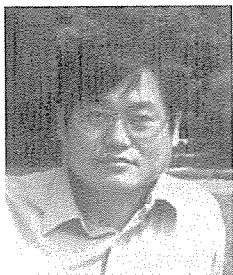


과학성 돋보이는 「흥부전」...

「흥부전」에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는 것은 정확한 과학적 관찰력의 소산이다. 또 「도깨비감투」는 머리에 쓰면 쓴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마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과학적인 사고나 공상적인 소재를 문학작품에 담았다.



李鐘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과학저술가)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인들로 홍수를 이루어 이탈리아 로마의 경유나 프랑스의 파리에 한글로 된 관광안내 책자가 있을 정도이다. 관광업소 종업원들이 한국인만 보면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면서 물건들을 사라고 따라 다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의 유산과 외국의 유산을 비교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들이 외국의 유산에 비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실토한다. 우선 우리나라 유산들의 규모에 대해 불평을 한다. 외국의 유물들

과 비교하여 너무나 왜소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천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변변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4천5백년 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은 2천년이 넘었고 로마의 고대 유적 모두가 한국에서 삼국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이르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산들의 질과 양을 외국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했던 것이 창피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빠짐없이 우리 조상들을 욕한다. 그 동안 변변히 세계를 향해 큰 소리 쳐보지도 못한 것은 물론 항상 강대국에 침략당했으며 일제시대에는 합병이라는 수도도 당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유산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세계에 자랑할만한 유산이 정말로 있는나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조차 심사위원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평은 한국민은 한마디로 과학적인 사고력이 없었다고 비하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과학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로 신화나 전설 또는 문학작품에 과학성이 깃든 내용 즉 시대를 앞서가는 상상력이나 과학적 관찰력을 엿보이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선조들에게 과학성이라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바보와 같이 살았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제비의 귀소성 알고 창작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미래에 대한 식견이나 과학적인 사고 없이 바보와 같이 살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한국의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과학성이 돋보이는 작품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흥부전」을 든다. 「흥부전」은 한 마디로 심술 많고 욕심쟁이인 놀부와 착한 흥부의 형제애를 그린 작품으로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소재로 삼았다.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갖가지 심술만 부리던 놀부는 결국 응징되고 착한 마음씨가 무기인 흥부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악한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체계를 확립시켰다.

물론 시대가 변천하면서 1960년대 말 이후 흥부가 비판되고 놀부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놀부는 나쁜 사람이 고 흥부는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흥부는 소비하는 만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부에게 쫓겨난 것이며 살아갈 대책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점들이 부각되었다. 흥부에 대한 놀부의 박대는 흥부에게 자립정신을 불러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놀부가

홍부로부터 화초장 하나를 빼앗아갈 때도 하인을 뿌리치고 자신이 직접 지고 간 것은 자립심의 발로로 보았다. 놀부가 홍부의 말을 듣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맹목적인 자본의 추구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불거지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과거를 되살펴보게 되자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홍부와 놀부에 대한 시각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홍부전」은 과학적인 측면을 보아 매우 놀라운 지식을 갖고 저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홍부전」의 또 다른 주인공은 제비이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여름 철새이다. 제비의 몸 길이는 약 17센티미터로 머리 꼭대기부터 꼬리까지 광택이 있는 검은 빛을 띠는 푸른 색이고 목과 윗 가슴의 경계에는 검은 띠가 있다. 등지는 인가나 건축물의 옥내 외에 짓고 귀속성이 강하여 매년 같은 동우리를 보수하여 사용한다. 이동시기는 10월을 전후하여 5백~1만마리가 무리를 지어 강남인 태국, 필리핀, 대만 등으로 날아간다.

「홍부전」에서 홍부의 집에 등지를 튼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구렁이에 의해 제비 새끼가 다리를 다치자 홍부가 다친 다리를 고쳐준다. 이를 감사하게 생각한 제비가 다음해에 박씨를 물고 온다. 박씨를 심고 주렁주렁 열린 박을 타자 홍부는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듣고 샘이 난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자신에게도 박씨를 갖고 올 것을 기대하는데 이는 작가가 제비는 다음 해에도 똑같은 장소로 되돌아온다는 귀소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고 플롯트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사실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는 것은 정확한 과학적 관찰력의 소산이다. 춘삼월에 찾아오는 제비들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나서 반드시 하얀 조개껍질 두세쪽을 물어다가 집에 놓아둔다. 이는 어린 새끼들을 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옛날 사람들이 엽구렁이라 하여 보호하던 능구렁이는 우리가 전봇대에 손톱을 긁을 때 몸서리치는 것처럼 조개껍질과는 상극이다. 이를 잘 아는 제비가 먼 바다로 가서 조개껍질을 물어오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을 관찰한 작가가 하얀색의 조개껍질 대신에 하얀 박씨를 물고 온다고 변환시킨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거의 모든 초가집 지붕에 박을 심었으므로 박씨에 의해 열리는 커다란 박을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소도구로 삼았다는 데 찬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투명인간」과 같은 내용

이 뿐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SF에 일가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 「도깨비감투」가 있다. 머리에 쓰면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마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감투가 아니라 몸에 걸치거나 풀잎을 가져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도깨비감투

를 얻었다. 그것을 쓰면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는 감투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실수로 담뱃불에 감투를 태우자 아내에게 감투를 기워달라고 했다. 아내는 감투와 똑같은 재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빨간 형질을 받쳐서 기워주었다. 그는 빨간 형질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투를 계속 쓰고 남의 집 물건을 훔쳐왔다. 마침내 도둑을 맞은 사람들은 빨간 형질조각이 왔다갔다하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 실컷 때려주었다.”

「도깨비감투」는 잘 알려진 서양의 투명인간과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투명인간이 되었음에도 남을 해치거나 감투를 이용하여 권력이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잔칫집이나 준비해 놓은 제사음식들을 훔쳐먹는 정도이다. 권선징악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도깨비의 내용도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주제를 당연시한 감이 있지만 현대 감각에 맞추어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문학작품은 비교적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공상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지 않았으며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면에서 뒤떨어지는 요인이었다고 줄기차게 비판을 받아왔지만 「홍부전」이나 「도깨비감투」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과학적인 사고나 공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7